'국비 확보' 전남 농산물 인프라 경쟁력 강화

장성 진원농협・무안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 공모 선정 스마트 APC·선별시설 구축 등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

국비 확보를 통해 전남지역 농산물 유통 인프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.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했다.

의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(APC)

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 국비 10 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원을 확보 별기 등 주요 시설을 새로 구축해 딸기,

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농산

을 갖춘 스마트 유통시설 구축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.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 품화, 출하 시기 조절을 통해 유통 효율성 과 농가 소득을 높이기 데 중점을 둔다.

장성 진원농협은 총 24억원 규모로, 농 산물 집하장과 선별장, 저온저장시설, 선 복숭아 등 지역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 특히 지난 5월 화재로 지원 공모사업에 장성 진원농협과 무안 물의 집하·선별·저장·출하 등 복합 기능 APC 주요 시설 3동이 전소되는 피해를

입었지만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 기능을 조기 복구하고 지역을 대표 하는 거점 스마트 APC로 새롭게 도약할

무안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은 총 9억 원을 투입해 기존 시설에 깐마늘 자동선 별라인과 자동소포장기 등 스마트 장비를 도입, 농산물 처리 물량 확대와 품질 향상 을 추진한다.

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"이

번 선정으로 전남 농산물의 유통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"며 "앞으로도 산지 중심의 스마트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적 극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.

2025년 11월 11일 화요일

전남도는 앞으로 산지 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협조직과 농업 법인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APC, 선별시 설 구축 등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박정렬 기자 holbul@gwangnam.co.kr

광주경총, 김경희 원장 초청 금요조찬포럼

1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…행복한 소통 주제

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4일 홀 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소통 전문가 김경희 희망교육개발원장(사진)을 초 해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해왔다. 청해 '사장으로 산다는 것-행복한 소 통'을 주제로 제1703회 금요조찬포럼 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.

신으로, 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 교육 원장과 소나무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했 으며 전국 각지 대학·공공기관·기업체 등에서 약 7만회 강의를 진행한 소통・ 행복 분야의 대표 강연자다.

대한민국 명강사 33인에 선정됐으

며 KBS1 '아침마당', KBC '꼼지락', MBN '동치미'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

저서로는 '괜찮아, 희망이 있다면', '쌍문동 연가' 등이 있다.

이번 강연에서 김 원장은 '사랑의 5 김경희 원장은 미스 광주전남 진 출 가지 언어'(스킨십, 인정해주는 말, 함 께하는 시간, 선물, 희생과 봉사)를 중 심으로 겸손은 행복의 리더, 나누는 행 복과 기쁨, 후회 없는 친절, 웃는 습관 등을 통해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 는 소통의 리더십을 제시할 예정이다.

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"이번 특강



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 하는 법을 배 우는 자리"라 며 "긍정적 태 도와 공감적 경청, 상대의

강점 발견과 격려를 통해 조직은 물론 가정에서도 따뜻한 리더십이 확산되길 바라다"고 말했다.

한편,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 문의는 회원사업부(062-654-3426)로 문의하면 된다.

송대웅 기자 sdw0918@gwangnam.co.kr

중기부, 소상공인 AI 활용 시범교육

네이버스퀘어 광주 등 전국 7곳 개설

중소벤처기업부는 '2025년 소상공인 상 생협업교육(소상공인 AI 활용 교육) '에 참 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.

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활용 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. 민간 AI 기업과 협업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교육은 내년 소상공인 AI교육 과정 체 계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커리큘럼·운영체계 등을 정비 해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.

놀로지스, 카카오가 교육기관으로 참여 한다. 각 기관이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함께 진 행된다.

현장 교육은 서울, 경기, 광주, 대전, 대 구, 부산, 제주 7개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기관별 교육 내용, 교육 장소,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.

다만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1개 기관의 1개 과정만 참여하는 것

현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은 유튜브 채널(공사장TV)을 통해 실시 간으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. 소상 공인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'소상공 국내 대표 AI 기업인 네이버, 뤼튼테크 인 지식배움터 (edu.sbiz.or.kr) '를 통해 관련 AI 교육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.

네이버는 서울, 부산, 광주의 네이버 스 퀘어에서 4회의 현장 교육을 개설할 계획 송대웅 기자 sdw0918@

김치연구소 '위킴 페스티벌' 21일 빅데이터·인문학 강연

세계김치연구소는 식품 분야 최초의 법 정기념일인 '김치의 날(11월 22일)'을 기 념해 오는 21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'제3 회 위킴 (We Kim) 페스티벌'을 개최한다.

'김치의 날'은 김치 재료가 하나하나 모 여(11월) 22가지 이상의 건강 효능 (22일)을 낸다는 의미를 담아 2020년 제 정됐다.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재 조명하는 법정기념일이다.

이번 행사는 세계김치연구소가 주최. 주관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 산식품부, 국가과학기술연구회,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, (사) 대한민국김치협회, LG전자㈜가 후원한다.

올해 위킴 페스티벌의 주제는 '과학기 술과 문화가 빚는 K-김치의 미래'다. 김 치의 세계화를 이끄는 과학적 근거와 문 화적 가치를 한자리에서 조명하기 위해 과학자, 빅데이터 전문가, 인문학자, 과학 커뮤니케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이 참여해 김치의 매력과 가능성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한다.

강연 프로그램은 △장해춘 세계김치연 구소장의 '세계김치연구소가 펼치는 김치 종주국의 미래' △빅데이터 전문가 송길 영 작가의 '빅데이터로 읽는 K-푸드 대표 주자, 김치'△인문학자 조승연 작가의 '인류 문명의 중심이 된 K-김치문화' △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(이선호)의 '세 계인의 슈퍼푸드 김치의 과학 이야기' 등 으로 구성된다.

'제4회 김치 콘텐츠 창작 공모전' 시상 식도 열린다. 전문가 심사와 국민 3205명 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통한 심시를 거 쳐 공정성과 참여도를 높였다. 이승홍 기자



이사장, 박사용 상임감사, 조상기 전무, 하정진 상무 등이 참석했다.

"50여년간 조합원·지역과 함께 성장"

남광주신협, 자산 5000억 달성 기념식

남광주신협이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신 뢰를 바탕으로 자산 5000억원 시대를 열 4000억원을 달성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

5000억원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.

이날 행사에는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 전남본부장을 비롯해 김종명 남광주신협 이사장, 박사용 상임감사, 조상기 전무, 하정진 상무 등이 참석했다.

남광주신협은 지난 2023년 1월 자산 인 지난달 자산 5000억원을 돌파했다. 이 남광주신협은 10일 본점에서 자산 는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신뢰와 참여가 만든 성과라는 평가다.

> 남광주신협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. 신협중앙회 '온세상 나눔캠 페인'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불과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, 독거노인•

저소득층 아동양육시설 등에 식료품을 후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. 또한 지역 보건의원과 제휴를 통해 조합원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서 비스도 제공하고 있다.

남광주신협은 앞으로도 탄탄한 내실을 기반으로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 서비스 및 공헌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.

김종명 남광주신협 이사장은 "오랫동 안 함께해준 조합원과 지역사회 덕분에 자산 5000억원 달성이 가능했다"며 "앞 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따뜻함을

전하는 신협이 되겠다"고 말했다. 이승홍 기자 photo25@gwangnam.co.kr

전남 '상큼애' · '오매향' 강원도 간다

12~13일 속초농협 하나로마트서 특판전

전남농협이 강원 속초에서 광역농산물 였다. 대표 브랜드 '상큼애'와 '오매향' 홍보 및 판매에 나선다.

까지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스포점에 서 '전남의 햇살, 속초의 바람과 만나다'

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스포점은 대한 자 이번 특판전을 준비했다"며 "앞으로도 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판매장으로, 하루 농협 전남본부는 오는 12일부터 14일 평균 매출액이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전 의 가치를 알리고,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 국 'TOP 10' 규모의 매장이다.

이번 특판전에서는 '상큼애' 대표 품목 를 주제로 특판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 인 사과·샤인 머스켓·방울토마토·단감과,

'오매향' 브랜드의 레몬·바나나 등을 시 중 가격 대비 최대 30% 저렴하게 판매

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"전남의 우 수 농산물을 속초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농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남과 북을 잇고 전국 곳곳을 찾아 농업의 중요성과 농촌 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

이승홍 기자 photo25@gwangnam.co.kr

